

# 50억 규모 모태펀드 조성...광주벤처 투자 '마중물'

## ECONOMY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 광주창경센터, 중기부 1차 정시출자 사업 선정 매출 20억이하 기술기반 초기창업기업 집중 육성

광주창경경제혁신센터는 최근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 사업(창업초기 소형분야)'에 최종 선정, 모태펀드 50억원을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정시출자 사업은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에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펀드매칭형 투자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지스트기술자와 공동으로 운용되며, 광주창경센터 자체 출자 및 민간 투자금을 포함해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펀드는 광주를 중심으로 창업 3년 이

내, 연매출 20억원 이하의 기술기반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광주창경센터는 이번 선정이 지역 창업 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활동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창경센터는 창업 초기부터 시장 진입, 후속 투자 연계를 포함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최근 5년 동안 개인투자조합 6개와 본계정 등 총 81억9000만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 37개 창업기업에 62억9100만원을 직접 투자했고, 팁스(TIPS) 운영사로

추천한 20개 기업이 전원 선정되는 등 지역 기반의 투자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번 펀드 결성으로 50억원 규모가 추가돼 총 131억9000만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됨에 따라 광주창경센터는 그동안의 투자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 및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 등록 및 결성은 오는 7월까지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집행

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성과 투자 접근성을 높이며 민간 투자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상용 광주창경센터 대표이사는 "지역 투자 기반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펀드 운용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이 기술력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내달 13일까지 2차 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황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며,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중진공 호남연수원, 무료 개방 30일까지 담양대나무축제 기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다음달 2일부터 개최되는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를 맞아 중소벤처기업 임직원과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포함한 연수시설 일부를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숙소 무료 개방은 대나무축제가 시작되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추진될 예정이다. 3일에는 조식도 무료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 숙박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ESG 교육도 병행, 대국민 의식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무료 개방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구글 폼(QR코드)을 활용해 신청 가능하며 50개실(2인실)을 선착순 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작성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한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호남연수원 (062-250-3024)으로 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주국세청, 대불산단 경영자협 현장소통 법인세 공제감면 등 맞춤형 컨설팅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 대불혁신지원센터에서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기업승계 지원제도, 기업경영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인숙 대불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장

은 "국내의 정세로 기업 어려움이 크고 특히 조세 부담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원자재 상승과 물류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박광중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 대불혁신지원센터에서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 포스코홀딩스 1분기 영업이익 5680억 2.6% ↓

철강 '선방'·이차전지 '고전' 나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개선되면서 작년 1분기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스코 실적이 매출 8조9680억원으로 5.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460억원으로 17.3% 증가했다. 주요 공장의 수리 증가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판매가격 상승과 원가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에너지 소재 사업 부문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450억원, 170억원으로 글로벌 전기차 캐즘 여파 등으로 실적이 반등하지 못하고 작년 1분기 대비 25.7%, 55.3%씩 감소했다.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는 포스코인더내셔널의 매출이 8조1540억원으로 5.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700억원으로 1.9% 늘어났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

글로벌 철강 업황 부진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 영향이 이어지며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홀딩스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5680억원으로 작년 1분기와 비교해 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매출은 17조4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440억원으로 43.4% 줄었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관세 전쟁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도 전 분기 대비 매출은 감소했으나

### 한-우즈벡, 광융합기술 연구 힘 모은다

####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협약...미래 융합산업 기반 구축

한국광기술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UZAS) 산하 에너지문제연구소(IPE)와 광융합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및 AI 스마트시티 기술 확산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 등을 잇따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특히 광융합기술은 스마트센서, 통신, 자율주행,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가능한

기술로 이번 협력을 통해 미래 융합산업의 기반을 함께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진행된 한국광기술원-에너지문제연구소-한국광산업진흥회-휴트로닉스 간 진행된 업무협약은 광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조명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AI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현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우즈벡 간 관련 기업 및 기술 인프라 교류 활성화, ODA 연계 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내 합작법인 설립 행정 지원, 정부 간 협력 연계 및 정책 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이 우

즈베키스탄의 도시 인프라에 실증적으로 적용되며 성과 중심의 실질적 국제 협력 모델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웅진 한국광기술원 원장은 "광융합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 조명, AI 도시 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협력 확장은 참여기업 모두에게 전략적인 기회"라며 "실증사업과 공동연구를 토대로 실질적인 산업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덕 트로닉스 대표이사는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인프라에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에너지 효율성과 스마트 기술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 새생명만들기

EDEN **경력 30년 노하우!!**

## 이든 하우스 컨테이너

NAVER 이든하우스컨테이너 검색

나만의 세컨하우스~ 갖고싶다!!

**조달청 3자단가등록업체/농공단지직접생산업체**

- 농약이대용식주택
- 컨테이너 제작,판매,렌탈,중고매입
- 스텔하우스
- 조경시설물(파고라,운동기구,벤치)
- 초소·읍연부스
- 휴먼지털이(윈드컨 제작,설치,판매)
- 이등식화장실

본 사/1공장 : 목포시 공단중앙로 30 (농공단지 내) 061) 277-0004

전시장/2공장 : 목포시 용매동 603번지 061) 261-7400

**(유)이든하우스**

